

목표관리제 적용을 대비한 철강산업에서의 온실가스 배출에 관한 연구

김미리, 박상원, 송호준, 박진원*
연세대학교
(jwpark@yonsei.ac.kr*)

목표관리제란 기존의 VA(자발적 협약제도)보다 강화된 온실가스 감축전략으로, 2009년 정부에서 발표한 연도별 BAU 대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 (2020년까지 BAU대비 30%감축(산업부문 18.2%))을 달성하기 위해 부문별 업종별, 업체별 감축목표 설정 추진하고 MRV 시스템을 통해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. 철강산업은 철을 함유하고 있는 철광석과 고철 등을 녹인 뒤 제선, 제강 및 압연과정을 거쳐 열연강판, 냉연강판, 후판, 철근, 강관 등의 철강 제품을 만들어내는 산업으로, 탄소를 환원제로 사용하기 때문에 다량의 CO₂를 배출 석유화학, 시멘트 산업 등과 함께 국내 에너지다소비 산업 중 하나로 분류되는 자본집약적 대규모 산업 분야이다. 철강산업의 온실가스 저감 기술의 도입을 확대함으로써 철강산업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얼마나 감축할 수 있는지, 2020까지 6.5%라는 목표량에 미칠 수 있는지 평가해보았다.